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

◇…… 저 울울창창한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곧은 길은 없을까? 가르 ……◇
◇…… 침을 알고자 경서를 처음 펴드는 이들은 물자건 아니건 우선 그 방 ……◇
◇…… 대함에 질리게 된다. 마치 미로에 들어선 느낌이다. 무언가 좀더 체 ……◇
◇…… 계적이고 단출한 입문서같은 것이 있었으면…. 이런 바램을 안고 ……◇
◇…… 산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갓 삭발한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
◇…… 교과과정의 경서를 차례로 쉽게 풀어 옮겨 본다. 〈편집자 주〉 ……◇

▣夫初人之心은 須親善友하고 親近賢善
부초인지심 수친리악우 친근현선
하며 受五戒十戒等하여 善知新學菩薩道하라
수오계십계등 선지지법개차
但依金口聖言이언정 莫聞諸流妄說이어다
단의금구성언 막순용류망설
旣已出家하여 參禪問衆하니 常念柔和善順
기기출가 참배청중 상념유화선순
하되 不得狂慢貢高니라
부득아만공고

무릇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처음으로 마음 먹은 이(초발심자)는 모름지기 나쁜 벗(계율을 지키지 않고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이)을 멀리하여야 한다. 반면 계행이 청정하고 지혜가 밝은 이를 가까이 하여야 한다.

오계·십계(또는 일체의 비구·비구니계를)등을 받고 어떻게 하여야 계율을 생명처럼지켜 잘 따르고, 어떤 경우에 계율을 어기고 범하게 되는 지도 잘 알아야 한다.

오로지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만 의지할 것이며 용렬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부질없는 말을 따라서는 안된다.

이미 이 몸 출가하여 세속의 욕망 버리고 청정한 수행의 무리에 참여하였으니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착하고, 공손하기에 힘쓸 지언정 교만한 생각으로 잘난 척, 자기를 높이는 짓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大者爲兄하고 小者爲弟니 懷有諍者거든
대자위형 소자위제 당유쟁자
兩說和合하여 但以慈心相向이지 不得惡語
양설화합 단이자심상향 부득악어
傷人하라
상인
若出惡言하여 誹謗賢善이면 如此出家는
약야기롱롱반 논설시비 여차출가
全無利益이다
전무이익

나이 많은 이 형이 되고 적은 이 아우가 되며 혹시라도 다투는 이가 있거든 양쪽 주장을 잘 화합시키되 오로지 자비심으로 서로를 대하도록 할 것이지 모진 말로써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시비를 따지려 한다면 그같은 출가는 하나마나, 마음공부에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된다.

▣財色之利는 甚於毒蛇하니 省己知非하여
재색지화 심어독사 성기지비하여
常須遠離하라
상수원리
無緣事處에 不得入他房院하며 當除睡眠하여 不
무연사처부득입타방원 당병처 부
得懶惰他事하라
득감지타사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의 독보다 더 심하다. 항상 지신의 마음자리를 관하고 그릇됨을 밝혀 모름지기 이를 멀리 여의도록 할 일이다.

꼭 참여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이 방, 저 방, 이 집 저 집으로 드나들지 말아야 하며, 솜기려 하는 일을 굿이 알아서 도움될게 없으니 억지로 캐어내려 해서는 아니된다.

▣非六日이면 不得洗浣衣하며 臨齋歡에
비육일 부득세완내의 임관수
不得高聲喧噪하고
부득고성제타
行益次에 不得携手突越序하고
행익차 부득단동월서
經行次에 不得閒談亂話하며
경행차 부득개금도비)

> *"만약에 함께 공부하는 도반들을 속이거나 업신여겨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시비를 따지려 한다면 그같은 사람의 출가는 하나마나 마음공부에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된다."*

옛새가 아니면 속 옷을 빨아서는 안되며(6일·16일·26일에는 빨래하느라 이·벼룩 따위를 죽이게 되어도 살생이 되지 않는다는 율법에 근거함)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는 왁왁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코풀고 침뱉지 말 것이며, 모든 대중행사(법요식·공양등)에서는 당돌하게 차례를 어겨서는 안되고 거닐 때는 옷깃을 풀어 헤치거나 활개쳐서는 아니된다.

▣言談次에 不得高聲歡笑며
언담차 부득고성희소
非要事거든 不得出於門外하고
비요사 부득출어문외
有病人이면 須慈心守護하며
유병인 수자심수호
見賓客이거든 須欣然迎接하여
견빈객 수흔연영접
逢尊長이어든 須恭敬禮拜하며
봉전징 수숙공회피

말할때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서는 안된다.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산문 밖으로 나다니지 말고 병든 이가 있거든 모름지기 자비심으로 돌보아 주고 손님을 보거든 모름지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윗 어른을 만나거든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비켜서야 한다.

龍 眼

갓 출가한 사미승 기본서

초발심 자경문은?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은 고려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과 신라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그리고 고려말 야운선사의 자경문(自警文)을 합본한 책이다. 이 책은 첫 발심수행자의 지침서이며 처음 출가한 사미승의 기본서이다.

계초심학인문은 수행청류를, 발심수행장은 부처의 마음을 일으켜 거룩한 행을 닦는 글이다. 자경문은 수행인이 스스로를 일깨우고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상 법석

"복은 스스로 지은 만큼 받게 돼

큰스님들의 수행 결정체인 설법은 그 자체가 깨침의 육성이다. 때문에 쉬운 생활용어와 자상한 비유로 엮어진 설법을 통해 우리는 지혜의 눈을 얻고 올바른 삶의 길을 터득할 수 있다. 본지는 바른 신행과 행복한 삶의 길잡이로 매주 큰스님들의 지상법석을 마련한다. 〈편집자 주〉

월하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만약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어둡고 밝은 것이 어떤 인연과 거래가 있다고 할 것이냐 궁금하기 한량없습니다. 모든 앎이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애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지은 만큼 복을 받기도 하고 잘못하면 벌은 받는 것이지 다른 누가 과일을 바구니에 담아주듯 복을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떠밀어 주듯 받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을 잘못하면 스스로 벌이 되는 것이고 행동을 잘하고 마음을 잘 쓰면 복이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하면 복이

작게 베풀어도 큰공덕

되고 어떻게 행동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만 하셨어요. 하고 안하고의 행동의 지는 각자 자기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시수대공덕(小施受大功德)"이란 조그마한 것을 베풀어 큰 공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함경이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모친의 유래를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친께서 생전에 궁전에 계실 적에 궁전에는 사방 백보를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전부 금은과 유리로 깔았습니다. 땅이 금빛도 나고 은빛도 나고 칠보로 장엄이 돼 휘황찬란했어요. 거기에다 백미의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난다존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난다는 부처님 사촌입니다. 부처님 모친에게는 조카가 되지요.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숙모께선 어떻게 그렇게 찬란한 복을 수용하게 됐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친이 전생에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당시 쌀 한되를 길가 돌부처님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으로 복을 수용하게 된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앞으로 5백생은 전륜왕위를 지어 전륜왕이 되고, 5백생은 제석신의 몸을 받고, 5백생은 대국 왕후의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쾌락을 다 받은 후에는 그 몸에서 천불을 출생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청정광여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 공덕, 즉 쌀 한되의 공덕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마지막에 가서는 청정광여래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걸 보더라도 조그마하지만 진실한 공덕을 쌓은 사람은 쌀 한되를 부처님께 올린 공덕처럼 크나큰 복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첫째 살아가는데 아무런 재해가 없어야겠고 복도 많아야 되겠지요. 명도 길어야 하는데 중간에 아무런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중생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죽고사는게 없어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재해라는 것에도 구애를 안받고 모두 초월했지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걸 필요로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 먹어야 하고 입어야 되고 견해야 되며 욕심이 있으니 뭐든지 가져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유모어가 많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머러스한 사람은 남을 잘 웃기고 남에게 이 맛살 찡그리는 일은 안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쾌활한 사람이라야 남을 웃기지 자기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은 남을 잘 웃기지 못하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오래 사는 것이나 오래 못사는 것이나 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좋고 쾌활한 느낌이 없이 살다보면 항상 이마가 찡그려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과 모든 힘이 위축이 되고 결국 죽게 마련입니다.

중생계는 제양등 장애가 있습니다. 불교에 조예가 깊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양을 요령있게 피하고 잘 이해하며 잘 해석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막혀서 자기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소견이 안생기고 혼미에 빠집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성사 주지 정성 신도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3동 939-2 ☎ 914-6532

안양시불교연합회 회장 재진 회원일동 ☎(0343)44-9806 43-8540

동명불원 주지 덕천 신도일동 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 ☎ 주지실 470-0108 사무실 488-7027

불광사 주지 조광현 신도일동 은평구 불광동 25-1 ☎ 359-5369

연화사 조실 영허 주지 녹원 음 신도회장 이보리행·대중일동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09-1 ☎ 962-6186

정룡사 마야합창단 주지 김법운 합창단·신도일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 612-0609

남북통일 기원 청동대불 봉안도량 호국각원사 주지 신법 총무 서대원 대중일동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98-83 ☎(0417)61-3545/62-1532

신흥사 (정소년 수련원) 주지 오성일 신도일동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42-1 ☎(0339)57-2695/3916